

2025 년 9 월 오이코스 나눔지 Oikos Sharing for September 2025

오이코스에서 찬송가 한 곡을 정하여 부른 후, 대표로 한 사람이 모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At Oikos, after selecting and singing a hymn, one person prays for the meeting.

말씀 읽기: 사도행전 1 장 1-8 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Scripture Reading: Acts 1:1-8

From Jerusalem to Judea and Samaria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는 사도행전

A Christ-Centered Reading of the Book of Acts

예수님의 공생애, 고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은 복음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미 오랫동안 구약에서 약속되어 온 하나님의 구원계획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다스리고 계십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이 땅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자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 주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이 선포하고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져 갔습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그리스도 중심의 책입니다.

The public ministry of Jesus, His suffering, crucifixion, resurrection, and ascension are the core contents of the Gospels. All of these events are the fulfillment of God's plan of salvation, long promised in the Old Testament. Jesus rose from the dead, ascended, and now reigns at the right hand of God's throne. Having ascended, the risen Jesus could no longer remain on earth with His people. Therefore, as He had promised, He sent the Holy Spirit, His own Spirit, to them. In this way,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God, which Jesus proclaimed and accomplished, continued to spread through His disciples. The Book of Acts must be understood in this Christ-centered context.

오순절 성경 강림 사건 이후 제자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는 주체가 됩니다. 이 사건 역시 구약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어떤 능력이나 힘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모든 이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며, 그리스도 중심적 사건입니다. 이러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된다는 약속이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임을 보게 됩니다.

After the event of Pentecost and the coming of the Holy Spirit, the disciples, by the Spirit's help, became the agents who carried out the work of the Kingdom of God. This event, too, was the fulfillment of Old Testament promises. We must not understand the Holy Spirit as some power or force unrelated to Christ. The coming of the Spirit at Pentecost was the fulfillment of God's promise poured out upon all people, and it was a Christ-centered event. Through this outpouring of the Spirit, we see that the promise of everyone receiving the Spirit is the same as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God being expanded to all.

사도행전 한눈에 보기 **An Overview of Acts**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속편으로서 누가복음과 달리 예수님 승천 이후의 하나님 나라 전파 과정을 다룹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 복음이 어떻게 온 민족에게 전파되는지를 보여 줍니다. 또한 성령께 붙들린 제자들이 그분의 능력에 힘입어 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증언합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책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무대 전면에 등장하십니다. 이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표현됩니다. 이 점을 놓치지 말고 사도행전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The Book of Acts is the sequel to the Gospel of Luke. Unlike the Gospel, which focuses on the ministry of Jesus, Acts describes the spread of the Kingdom of God after Jesus' ascension. It shows how the Kingdom expanded and how the gospel of the Kingdom was proclaimed to all nations. Acts testifies to the way in which the disciples, empowered and upheld by the Holy Spirit, carried out this mission. Like the Gospels, Acts is a Christ-centered book. In Acts, however, the Holy Spirit steps onto the stage in full view. This Spirit is described as the very Spirit of Christ. Therefore, it is vital to read Acts without losing sight of this reality.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 신학과 뗄 수 없는 책입니다. 비록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사도행전에 그다지 많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 책 전체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Acts cannot be separated from the theology of the Kingdom of God. While the expression "Kingdom of God" does not appear frequently in Acts, it becomes evident as one reads that the entire book is in fact about the Kingdom. The core of Jesus' teaching was the Kingdom of God, and likewise, the central message of His disciples was also the Kingdom of God.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이은 제자들의 가르침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종종 연약한 모습으로 묘사되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는 큰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능력만을 선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약속해 오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신 구속사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 이제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모든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In the Gospels, the disciples are often portrayed in weakness. But in Acts, they boldly proclaim the gospel with great power. What made this possible was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at Pentecost. This event did more than simply grant them power. It was the fulfillment of God's long-promised covenant, anticipated since the Old Testament. Pentecost was a pivotal moment in salvation history when God poured out His Spirit on all people. Through this event, the gospel was no longer confined to the Jews but extended also to the Gentiles. All who called upon and believed in the name of Jesus began to experience the reality of salvation.

사도행전은 바로 이러한 일들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특히 예수님이 약속하신 지리적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 줍니다(사도행전 18). 사도행전 전반부는 하나님 나라가 온 유대를 거쳐 사마리아까지 확장되고, 그곳에 있는 외부인들 곧 주변부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편입되는 일들을 보여 줍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구약에서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상치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Acts records these developments in detail. In particular, it shows how the geographical expansion promised by Jesus was fulfilled (Acts 1:8). The first half of Acts portrays the Kingdom extending beyond Judea into Samaria, where outsiders and those on the margins were incorporated into the people of God. Through Acts, we witness the gospel of the Kingdom, promised in the Old Testament, advancing in surprising and astonishing ways. This is nothing less than the work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이유는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온 땅과 만민을 다스리는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제한이 없듯 그분의 복음 또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The reason the Kingdom of God must be proclaimed to all nations is that the risen and ascended Jesus is now Lord over the whole earth and all peoples. Just as the

authority of Jesus Christ has no limits, so too His gospel will reach to the very ends of the earth.

나눔 질문 Discussion Questions

1.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복음은 유대인을 넘어서 온 세계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이 복음이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나누어 봅시다.

Through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at Pentecost, the gospel began to spread beyond the Jews to the whole world. That same gospel has now reached us today. Let's share how this gospel has transformed our own lives.

2. 성령님은 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나요? 변화된 나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How is the Holy Spirit at work in your life right now? In what ways is your transformed life influencing or impacting others?

3. 하나님의 복음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는 한 주간이 되기 위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누어 봅시다.

What are some practical steps you can take this week to apply God's gospel to every area of your life? Let's share and encourage one another.

기도로 함께 소망하며 **Praying Together in Hope**

1. 성경 말씀에 기초해,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12)

1. Based on the Scripture, offer a prayer of praise and thanksgiving.

Salvation is found in no one else, for there is no other name under heaven given to mankind by which we must be saved. (Acts 4:12)

2. 일상의 변화를 소망하며,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2. Hoping for change in our daily lives, offer prayers of repentance and resolution.

3. 서로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3. Pray for one another and for the church.

4. 주기도문으로 오이코스 모임을 마칩니다.

4. Conclude the Oikos meeting with the Lord's Prayer.